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3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6. 24(금) 14:07~16:54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3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선 점검으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안건 중에 국회지정사업 뉴서울오페라단의 '시집가는날' 1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3건을 모두 의결한 후 오후 3시를 전후하여 뉴서울오페라단 관계자 분들을 통해 보고안건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책혁신부 김윤희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14인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집에는 상임감사님과 감사실장이 오늘 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무처장직무대행 뿐만 아니라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차건주 대리, 박성훈 주임이 회의를 함께 보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주 본청에 전략사업부의 이윤희 본부장과 보고자가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하고 있습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대면 6인, 비대면 4인으로 총 10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33차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정형사업 추가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34차 서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5개의 안건 역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전차(前次) 회의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받았 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전차(前次) 회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의안 제961호 2022 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제962호 2022년 아르크문학창작 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제963호 2022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 여예산 활용 계획(안) 등 3건의 의결사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61호 2022년 예 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엄민영 미래사업부장이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미래사업부 엄민영 부장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나주 본관 3층 회의실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선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회선 점검)

박종관 위원장 : 지금은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정회)

(14시 14분 박경주 위원 회의 참석)

(14시 1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인 의안번호 제961호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접속하셨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본 안건은 엄민영 미래사업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부장은 보고해 주십시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61호입니다. 본 건은 저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지난 3월 위원회에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았던 건이고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활동에 도전하고 싶으나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기술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예술계를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기술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연속 공모를 진행하였고요. 1단계 공모를 통하여 6개 데이터 기업을 선정하였고 2단계 공모를 통하여 예술인단체 1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의자료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짧게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계속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알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지원의 특성은 8쪽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데이터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는 공모에 37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기업에 대한 서류심의 그리고 수행역량에 대한 재정적 수행역량 평가 그리고 2단계 PT·인터뷰심의 등을 통하여 6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6개 기업이 8개 상품군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5일 예술위와 함께 예술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2단계 공모를 받아서 55개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18건을 지원결정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동 사업은 동일한 심의위원이 1단계, 2단계 연속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예산 4억 원 중에 올해부터 실시된 과세기업의 부가가치세 제외 방침에 따라서 3억 9,900만 원 정도의 지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개 대상을 예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의견서 제출을 요청드렸으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사전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 6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특히 18쪽, 19쪽의 심의 총평을 참고하시어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심의 의결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이 없으시다면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정숙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데이터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결격사유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예컨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급이 된다면, 혹시 못 받아서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청기업이 많다면 몰라도 데이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하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포괄해서 예술인의 경우에도 이른바 결격사유가 발생한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기술기업에 전문적인 기술 역량과 안정적인 사업수행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제출 서류로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 안정적인 수행능력을 볼 수 있는 필수서류에 대한 요청을 공모 때 발표했습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업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절차가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비한 곳을 행정 결격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격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한 필수자료의 최소화 등은 저희들이 사업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단계 결격사유의 경우 본 사업은 필수사항으로 사전에 선정된 기술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올해 사업기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예술단체와 예술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기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필수적인 절차로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기업과 신청하신 예술인이 모두 다 서명하는 사전협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본 사업의 목적이 기술융합 예술활동에 있어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2022년도에 미래사업부가 진행하는 3개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이나 단체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으나 올해의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고도 신청하신 경우가 있어서 2건이 결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건은 저희 사업이 아닌 타사업의 신청서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로 행정결격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정정숙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대면으

로 접속한 위원님들께서도 회선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할까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정유란 위원 : 잘 들립니다.

유은선 위원 : 나주에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끊어져서 들리기는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 회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은선 위원 : 조금 천천히 말씀하시면 잘 들릴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을 천천히 분명하게 해주셔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 본관에서 접속하여 보고하는 보고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심의 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당부 드리는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결과 관련하여 말씀이시죠?

정정숙 위원 : 예. 엄민영 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것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매칭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는 했어도 신청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도전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본 사업이 실행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사업을 수행하신 분들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반드시 지역을 순회하거나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에도 이 사업이 운영될 때 지역에서도 최소한 선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청 자체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설명을 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11쪽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청률 대비 선정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산술적으로는 “신청률을 선정률에 대비하여 뒤떨어지게 하지 않는다.”가 어떻게 보면 최소보장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른바 새로운 역동적 사업에 대한 지역의 배려라든가 지역이 이런 사업에서 역동성을 낼 수 있게 하는 장치와 관련된 포괄적인 주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업부 쪽에서 이와 관련하여 올해 지원사업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안을 내었으면 하는 것이 정정숙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염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올해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술활동에 대해서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별도의 교육과 기존 기술융합과 예술 사례 등을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도 차근차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게 될 때는 지역 쪽의 기업과 지역 쪽의 예술인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더 신중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런 대안이 선정률과 신청률 모두에서 양질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말씀으로 손을 들어주시거나 말씀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고 많은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어서 안전번호 제962호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박종관 위원장 : 역시 마찬가지로 회선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깐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로 넘어가서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전년도에는 발간지원 유형 하나만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증액되고 발표지원 트랙이 신설되었고요.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반기 공모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억이고요. 200만 원씩 100명에게 정액지원을 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미발표 작품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지원금을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작품에 대한 온라인 발표 기회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결과는 1,590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 심의대상이 1,479건이 되었고요. 결격은 111건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단에 있는 구성 비율도 한번 눈여겨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심의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검토를 거쳐서 심의를 6월 13일과 14일에 대면으로 진행했구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 3분의 2 하단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시·시조, 소설 등 장르별로 선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100건이구요. 선정 현황에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연령별 비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28일 화요일에 결과발표를 할 예정이구요. 곧 이어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공모도 당초에는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고지가 되었는데요.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자료를 보시면서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 분야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의결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품이 발표작으로 확인되어 결격처리가 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비 1순위로 선정된 작가와 작품이 승계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결격처리 건이 있는데요. 결격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를 했던 미래사업부와 유사하게 당초 고지한 내용에서 결격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 이게 111건인데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중복신청 되었거나 기 발표작이 제출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심의 때 이 결격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큰 결격사항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응모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본 안건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사전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의견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림 위원 :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격사유 중에 한글 파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PDF로 제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결격사항 중에 PDF로 지원서를 제출하셔서 결격이 된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글 파일을 PDF로 제출하는 게 왜 결격사유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품 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글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해서 저희가 삭제 처리도 할 수 있는데요. PDF는 아예 수정·보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PDF로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결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격이 될 수밖에 없는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반기 심의 때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해서 결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제는 이번에 몇 개였느냐는 것인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PDF 제출로 결격된 건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건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답변이 되셨죠?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모 심의를 한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안배 혹은 청년 안배와 관련해서도,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유지한다는 원칙 외에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느 쪽도 30%를 넘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상적으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수도권도 39%에 이르고 청년의 경우에도 31% 정도라서 안배 등은 비교적 타 지원사업에 비해서 우량하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논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62호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도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가의 집 위원회 회의실에 모여 있는 위원님들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고요. 비대면으로 접속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도 충분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 모두를 물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가 없고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므로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963호 2022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여예산 활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회의자료 47쪽에 있는 의결안건으로 2022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여예산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진행경과는 위원님들께 2020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공연예술사업체의 규모와 장르대표 사업들이 어떻게 선정되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감액된 사업의 현황 등을 먼저 사전보고를 드리고 이 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는 전체 공모예산이 76억 6,500만 원의 규모로 장르대표 사업들이 연극, 무용, 음악 등 3개 장르에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체 총 공모예산이 10억 이상 감액된 상태에서 6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르대표 사업들이 연극 2개, 음악 1개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증액의 노력을 통해서 79억 5,400만 원이라는 전체 총 사업예산을 갖고 장르대표 사업들은 더 이상 추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의 장르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굵은 색으

로 표시된 3개 사업들이 2021년도에 선정된 장르대표 공연예술제 사업들인데요. 전체 총 사업예산이 2021년도에 너무 많이 감액되어 실질적으로 장르대표가 직전 연도에 선정된 지원규모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결정된 예산들이 전년대비 약 80.7%의 수준에서 지원결정이 되었구요. 이 장르대표 사업들은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예산 규모로 지원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여예산으로 2억 7,8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 정시공모 때 무용 분야에서 발생한 2억 860만 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했구요.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단법인이 콘텐츠진흥원에서 동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의 추가 잔여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도 12월에 정시공모 의결할 때 의결안건에도 있었지만 잔여예산을 갖고 별도의 기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의결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 7,860만 원에 대한 잔여예산을 2021년도에 물리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에서 선정되었던 장르대표 3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 배정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가운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이 이미 4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대한민국연극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2개 사업들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정된 2개 사업에 대해서 약 2억 7,860만 원에 대한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감액된 예산의 총합이 3억 2,2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86.4%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예산들을 2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 배분해서 올해 사업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대한민국연극제에 1억 2,020만 원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1억 5,840만 원으로 배정하게 되면 2020년 대비 97.4% 정도의 지원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업 모두 내년에도 장르대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내년도에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결정 규모들을 반영해서 전체 감액 예산 대비 약 82.7% 정도를 반영해서 일괄 교부를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연극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역시 내년도에 진행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도 82.7%를 반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50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후에 해당 사업 단체에게 공문 발송을 통해서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부장께서 추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3억 7,8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6억으로 증액되어 계속해서 6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대한민국연극제입니다. 전국연극제가 대한민국연극제로 바뀐 것인데요. 이것이 2016년도에 8억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억 2,000만 원으로 되었다가 작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2017년도에 9억 6,000만 원에서 2018년도 9억 6,000만 원, 2019년도에는 9억 9,000만 원, 2020년도에 9억 5,000만 원, 2021년도에는 7억 6,670만 원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를 드렸을 때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로 인해 3,000만 원 이상으로 예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로 깎은 대신에 절약한 부분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은 본 사업에 맞는 취지로 쓰는 게 원칙인데 심의위원들이 남겨 놓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 때문에 사무처에서 이런 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이 공연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예컨대 국제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초청을 주로 하는데요. 초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감액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같은 분야에서 증액시켜주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과도한 예산 축소로 인해서 대규모 탈락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 과정에서 30억의 추경을 편성해서 대응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보다 먼저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축소된 예산을 위원회가 최소한의 행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등 주요한 행사들의 예산 축소로 이어졌고요. 이 축소는 추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액수만큼 복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이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2022년 회계연도에 그대로 지원심의가 확정되었죠. 물론 다년간 지원계획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로 시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고 일부 잔여예산이 확보되어 예산을 배분하고자 하는데 대한민국연극제나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대해 사무처가 제출한 안대로 증액을 당장 시켜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2023년도 예산은 회의자료 50쪽과 같이 적용하여 지원하면 어떠한 것이 오늘 의결주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약된 의견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사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 절차로 넘어갈까 합니다.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음이 확인되었고요.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고 다수 위원님들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2022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여예산 활용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의결안건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장 정리와 보고안건 준비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 후에 오후 3시 정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보고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총 9개의 보고안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지정사업인 뉴서울오페라단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보고의 건이 있고요. 2023년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육기금 사업인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44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14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제14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제1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제11차와 제12차 다원예술TF 회의 결과, 제16차 청년TF 회의 결과 등 소위원회와 TF 활동 결과보고가 오늘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고사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고요. 먼저 국회지정사업 보고인 뉴서울오페라단의 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접속해 있습니다. 먼저 보고해 주시고요. 단체의 대표자께서도 오늘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계시는데요. 함께 소개도 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국제교류부 소관 국회지정사업인 뉴서울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시집가는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기금 지원예산은 총 3억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국회지정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올해 공연은 베트남 수교 30주년이라는 모멘텀이 있어서 이 일환으로 하노이 오페라하우스에서 9월 19일과 20일에 2회 공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베트남 현지의 하노이재향군인회와 국내에 있는 월남참전자협회가 협력을 추진합니다. 오페라의 특성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례비와 국외여비 편성이 70% 이상이고 자부담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은 태국에서 현지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공연을 진행하였고 영상을 태국에 송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모니터링 내용을 반영해서 무대연출이나 작품 표현 등을 일부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해당 장르의 위원님께서도 평가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뉴서울오페라단의 홍지원 단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단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예,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로 저희 오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작품은 한국의 '맹진사댁 경사'라는 주제이고 배경은 민속촌이 되겠습니다. 한국 창작오페라를 가지고 저희가 약 100명 정도가 하노이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오페라가 나들이를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 창작오페라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저희는 이번 교류행사를 통해서 베트남의 학생들 그리고 음악예술인들에게 이 오페라를 소개하면서 교류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페라는 성악가들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사물놀이 등 모든 스태프들이 가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대표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희가 질의를 이어갈 겁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셨고요. 단체의 대표자께서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셨으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열 위원 :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과 좋은 공연이 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기금의 집행 적정성이나 성과관리 환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적어서 내셨는데요. 이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성과에 나온 바와 같이 음악대학과의 교류라든지 전통창작오페라 확대의 다양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는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태프 50명을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했지만 사실 계획상으로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이 현지에서 조달되는지가 불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통역비까지 우리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적어주실 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어서 처음으로 가는 대규모 행사인데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많은 인원이 오는 것보다는, 보통 해외공연을 잘못하게 되면 교포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좋은 창작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대표님께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염려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현지인이 거의 참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한국의 창작오페라를 세계화 하겠다는 일념으로 가겠다는 거니까요. 우리 한국예술인들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단체는 해외공연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제작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화를 낭비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오페라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정정숙 위원 : 홍지원 대표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술경영 쪽의 박사 학위가 있고요. 지금까지 경험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이 공연에서도 이쁜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단장이면서 대표인 분께서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될 경우 다른 스태프나 다른 배역을 맡은 분들 사이에..... 뭔가 경영만 제대로 하기도 벅찬데요. 연기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배우들의 저항감이나 문제제기 혹은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이것은 제가 아주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한국에서도 '시집가는날' 오페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또 교류에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태프에게 여쭙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제가 잘 몰라서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예, 감사합니다.

정중열 위원 : 이번에는 사무처에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증빙서류에 태국의 자료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아니고 태국말로 적혀 있어서요. 이런 것을 받을 때 공증이나 번역이라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은 추후라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먼저 사무처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저희가 전체적으로 뉴서울오페라단에서 문서를 확인했고요. 어느 정도 번역을 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문 번역본을 받는다는 것은 추후에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내용은 그렇게 확인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요약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과 한국은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은 한류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 경제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입장에 양국이 놓여 있는데요.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공동 수채화전을 연다거나 굉장히 많은 예술교류와 학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대표님께서 낭비를 넘어서서 성과를 구축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목표로 존재하지 않고 성과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도 이후 대한민국의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을 지탱하는 최후의 버팀목으로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위태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한국예술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로는 몇 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획서를 쓰고 그렇게 제출한 계획서 중에서 70%는 지원에 실패하고 30% 미만의 적은 양을 지원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정하여 훌륭한 사업 기회를 가진 것이니 만큼 이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런 보고회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관찰할 것이며, 또한 사업이 잘 되도록 돕고 견지하는 역할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잘 견인되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추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가 많이 위축되었고요. 지금은 사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클래식 이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에서 한국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오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한국문화의 높은 위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마음 깊숙한 곳을 적시고 돌아오는 좋은 공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끼리 추가 논의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국제교류부장님 저희 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이 되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평가는 일반적으로 장르 위원님 1인과 평가위원 2인 정도를 위촉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되는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종열 위원님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위원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보고받는 동안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15시 09분 이진희 위원 회의참석)

박종관 위원장 :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국제교류사업이니 꼼꼼한 평가가 함께 병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2023년도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국제교류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국제교류부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4페이지입니다. 내년은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이 열리는 해인데요. 올해 미술전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처에서도 전반적으로 운영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미술과 건축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지난 3월에 전반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선정위원회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해서 한국관의 전반적 운영과 공모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선정위원회는 예술감독 선정부터 전시에 대한 자문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인적 구성으로 운영자문위원회는 여러 자문 사항의 행정적인 연계를 위해서 당연직이 참석하지만 선정위원회는 100% 외부 위촉직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미술과 건축계의 전시가 콜렉티브 형태라든지 공동 큐레이터 형태로 많이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서 공동감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함께 감독과 작가의 임무를 조금 구체화했고 해촉 사유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공모에 대해서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서 건축전 공모에 착수했고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직전 건축전의 접수가 2건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진행해서 언론사는 물론이고 건축 관련 협회와 각 대학 건축학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베니스는 1건을 선정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론을 통한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접수된 6개 팀 중에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2차 PT심의 대상으로 5개 팀을 선정했고요. 2차 심사에서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4번에 정소익, 박경 팀의 'civichon 3.0'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소익 선정자는 현재 도시매개프로젝트 대표고 박경 선정자는 샌디에고 대학의 비주얼아트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두 분은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APAP를 함께 추진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린 후의 일정은 베니스비엔날레의 규정에 따라서 베니스 재단 측에 먼저 결과를 공유하고 6월 28일에 선정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최초로 공동감독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충분히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54쪽에서 60쪽을 참고해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진행계획이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에 저희가 고지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8일에 외부에 알리는 수순으로 진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진행사항과 앞으로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할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023년도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는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은 체육기금으로 운영되는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공연예술부가 담당하므로 홍승욱 부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회의자료 6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 공연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기금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감액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적격자 지정 방식을 통해서 구성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배수 추천을 통해서 랜덤으로 섭외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을 포함해서 총 10인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62쪽 상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통예술 분야의 심의위원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포기를 하셔서 전통예술 분야는 1인이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는 6월 17일에 진행이 되었고 전수검토제, 온라인 채점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지원제가 적용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장르별 예산배정(안)은 저희 지원심의 운영에 따라서 4:1:4:1의 비율을 고려해서 진행되었습니다.

63쪽 지원심의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이 결정되었고 9억 4,000만 원 전액이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르별 지원결정 현황을 보시면 연극·뮤지컬이 10건, 무용 2건, 음악 7건, 전통예술 8건, 다원예술 1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신청이 160건이고요. 2021년도에는 약 126건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신청되었습니다. 지원결정 비율도 상당히 빠듯합니다. 건수로 보면 17.5% 그리고 지원결정 금액으로 보면 약 15.8% 정도가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지원결정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이 전체 총 28건 가운데 18건으로 64.3%, 비수도권이 10건으로 35.7%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균형지원의 기준인 28%를 훨씬 상회하는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다원예술 분야에서 총 7건이 신청되었습니다. 다만,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적 정의가 확고히 되어 있지 않아서 복합장르나 대중가수들이 다양한 복합장르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결정하더라도 본 사업 기획에 맞는 사업들이 1개밖에 없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남은 잔여 예산은 연극·뮤지컬 분야와 타 장르에 조금씩 이관하셔서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의 회피 사항이 있습니다. 총 2인이 회피를 해 주셨고요. 연극·뮤지컬 분야에 꼭

수정 위원님은 배우셨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가들과 공연을 하셔서 회피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진행되면 6월 말경에 본 사업들을 공고하고 교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과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다원예술 분야의 경우 심의위원들께서 7건 중에 1건만 가능하다고 해서 1건만 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밑에 보면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예비후보가 있다는 것은 이 후보도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명 자체의 말씀과 결과가 매칭이 안 돼서 한번 더 여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각 장르별로 일단 예산이 배분되지 않습니까? 장르별 예산이 배분되면 결정된 순위 아래에 있는 단체가, 그러니까 선정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그 아래에 있는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원도 1건만 사업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1건 정도는 예비후보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결정을 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확인할 것은 아까 분명히 다원 심의위원들께서 1개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신거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정정숙 위원 :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른 장르에 썼다는 것은, 다원예술 장르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요. 그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예비라는 것은 최소한 다원예술 분야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가 된 것입니다. 제가 다원예술 장르의 심의위원이었다면 1번과 2번을 선택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본 것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100% 동의 하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전통예술의 심의위원 1인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어 포기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전 심의위원을 섭외했을 때 확인을 못 하신건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처음에는 수락을 해 주셨는데요.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 심의가 열리기 전에 갑자기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이 못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심의위원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통보를 받고 결정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은선 위원 : 보통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셨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

요? 전통 10인 중에서 1인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각 장르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통예술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인 중에 1인이 빠졌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시 이런 경우 항상 그렇게 해 왔는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저희가 사전전수검토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심의회의는 대면 심의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심의회의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온라인 심의는 하신 거고 대면 심의만 안 하신 건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온라인 심의에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아예 빼 버리신 건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사전 전수검토 자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1차 심의한 것까지 다 빼는 게 맞는지? 이런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본심의 일정이 급박한 상태에서 갑자기 심의를 포기하신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 일정을 미루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전체 심의위원 일정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전통예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장르를 아울러서 심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심의위원을 구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가능성, 개연성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특정 장르에 있는 2인이 모두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절반 이상으로 개회가 되니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원래 심의위원을 구성한 기본적인 원칙인 전 장르를 아울러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예술 분야 2인이 모두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1인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심의는 가능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인이 모두 불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본심의 일정을 연장했을 것입

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만약 2인 모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심의일정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중간에 위원님의 질의를 끊어서 송구합니다.

유은선 위원 :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심의를 했는데 대면심의를 못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했던 것도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름 전문영역에서 했을 겁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안 하신 1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만약 연극을 같이 하게 될 경우 연극 쪽 장르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게 되거든요.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2개 모두 못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사람을 섭외하든가.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 장르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의 옹고그림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개 팀이 되었던 거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지만 의아하고 문제 제기가 있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전통예술 쪽의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모르기는 한데 “과연 발표를 했을 때 이해가 될까?”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것을 다 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통합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온라인 때 한 거면 그것은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지금 뒷부분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가지 문제인데요. 단수로 심의한 결과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개 모두 유효합니다. 더군다나 보고를 받고 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나 체육기금사업의 경우 보고로 사업이 완성되지만 지원사업이니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지원사업이 완성되는 것이라서 의결에 준하는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유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비단 전통예술 장르에만 해당 되지 않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단수로 심의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은선 위원님 다시 접속이 되셨나요?

유은선 위원 :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되어 재접속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자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겁니다. 만약 1차 점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점수를 아예 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아예 삭제할 문제인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위원님, 심의를 회피하신 위원님께서서는 1차 채점도 아예 참여를 안 하신 겁니다.

유은선 위원 : 아예 안 한 것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빠지신 분은 아예 안 하셨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랬다고 하면 바로 다른 심의위원을 위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천 후보 4명이 있었잖아요. 사무처에서 2명을 했고 제가 2명을 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안 된다고 그냥 1명을 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할 사람을 찾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온라인 심사를 하루 만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심의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들도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 심의위원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되었는데요. 사전전수검토 의견서를 드렸는데 채점을 하시고 계신지는 저희가 매일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은선 위원 : 저는 이번 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요. 물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온라인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안은 논의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의는 전체 위원님들께 여쭙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심의 결과는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시고요. 대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향과 관련해서라도 몇 말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정숙 위원 : 결재 라인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비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체해서 예비후보라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재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무처장님이나 위원장님의 결재를 유선상으로 받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정정숙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 심의가 160건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께서 신청서 하나하나를 숙지하시고 사전검토의견을 달아야 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 후에 포기를 했을 경우 심의의 전체일정을 뒤로 미루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습

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확인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특정 장르의 모든 분께서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의를 연기해서라도 해당 장르의 입장이 들어가도록 심의를 조절한다는 것은 오늘 회의 중에 확인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심의위원 중에서 어떤 심의위원께서 문제가 생겨 심의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요된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절차를 미루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역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는 유은선 위원님께서 전통예술 장르를 예로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여전히 보다 좋은 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한 결과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잘 들리십니까?

박종관 위원장 : 예.

전고필 위원 : 전통예술분야 선정단체의 공연, 이 공연단체 소재지가 인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들리기는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전고필 위원님께서 이동 중이라서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고필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메모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메모로 올리시면 제가 그것을 읽어서라도 회의 의사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른 장르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유은선 위원님께서 1차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은선 위원 :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통 부분의 심의위원, 이번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돌리셨다고 했는데요. 랜덤으로 돌리는 것과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전통은 우선순위를 항상 물었는데요. 이번에는 없어서 지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회의자료를 보면서 “1명이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는데요. 랜덤으로 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회의는 진행해야 하

니까요.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게 절차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 들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보고를 받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유은선 위원 : 예, 일단 전통 때문에 못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의사를 확인했구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우선순위와 관련한 이른바 장단점이나 유은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2개 선임 방식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제도 구성에 있어서 전담심의위원제도와 적격자 지정방식 등 2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본 사업의 심의위원 구성은 적격자 지정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구요. 분야별 위원들에게 4배수 추천을 받은 전체인원수가... 추천을 통해서 분야별 2명씩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랜덤으로 돌리면 각 장르별로 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고 만약에 안 받으면 왜 안 받았는지를 남겨 놓고요. 통화를 하고 참여를 못하시겠다고 하면 그 사유를 달아두고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심의위원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돌리면 순위가 나오고 그 안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섭외에 들어갑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과정은 알겠구요. 지금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요. 양쪽 제도의 차이나 장단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원총괄부장이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회의에 참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술창작본부장이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심의위원 구성 제도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담심의위원제도와 적격자 지정 방식밖에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알고 있다가요.

유은선 위원 : 오늘 이 자리를 길게 끌고 싶은 마음은 없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담 심의위원제와 적격자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인력풀에서 하고 어떤 때는 인력풀 밖에서도 하는데요. 사업별로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은 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 더 이상 길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구요. 거기에 관해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궁금하신 분들만 모여서 줌 회의라도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더 이상 길게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님의 의견이 도착했나요? 제가 옳기겠습니다. 전고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전통 분야의 선정단체중에 모 공연을 아카이빙 한다는 사업을 낸 것 같습니다. “의도가 대체 무엇이나? 이 부분이 민속학이나 지자체 문화원, 무형문화유산원 등에서 충분히 감당이 되는 사업인데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신 겁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꼼꼼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기억에 이 사업은 전통예술분야 원로예술인들이 참여를 하셔서 공연도 하시고 그 공연의 기록을 하시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당시 위원님들이 결정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그때 모두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업이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업이다보니 말씀하신 대로 중복은 있다하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심의위원들이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답변인데요. 일단 전고필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전고필 위원 :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통예술분야 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모두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9인 중에서 8인은 전통 쪽이 아니잖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자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그 분들은 그냥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데요. 이게 사실 원로예술인들의 공연을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아카이빙은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우선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가 통합심의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통합심의로 진행이 되었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통합심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72쪽의 심의평을 보니까 심의 과정은 모두 4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통합 심의인 만큼 장르와 분야별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심의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예술을 포함한 여러 장르가 통합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전통예술 심의위원 1인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가 적합하게 심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전통예술 장르 심의와 관련하여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유은선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혹은 어떤 점이 문제점인 것인지 표현상 적합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는데요.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예술 장르 위원인 유은선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통합심의가 확인되었고요. 2022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유은선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통합심의를 한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통합심의이기 때문에 장르별로 2인씩 10인이 하기로 했고요. 10인 중에서 1인이 빠지는 것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만 보면 2인 중에 1인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된 8개의 팀 그리고 8개 팀의 장르적 성격이나 전통예술 내에서의 성격 그리고 지역이 배려되지 않은 게 아쉽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충실하게 심의해 주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결론적으로 선정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이것은 전통예술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조건 랜덤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중도에 심의위원이 못 한다고 했을 경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정족수만 넘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통합심의에서는 1명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장르별이면 5명 중에 1명이 빠져도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유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예술 장르만이 아니라 어떤 장르라도 해당 장르 심의위원이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심의 참여가 안 될 경우, 생기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정 합리성을 득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무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담당 부장과 본부장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유은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통합심의에서 오는 장르별 위원님들의 부담감과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통합심의를 방식을 지양하고 장르별 심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이후 심의 방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방금 홍승욱 부장이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심의를 공모하기 전에, 혹은 심의 전에 다시 한번 제도를 사무처에서 다듬고요. 사무처의 지원총괄부 중심으로 해서 유은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제시해 주신 세부적인 심의제도 보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공연예술부장과 예술창작본부장이 연이어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용대로 보다 넓은 범위의 개선안을 내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은 원로예술인 사업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결과를 보고 받을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사항은 소위원회 TF 활동 보고인데요. 차례대로 정책혁신부장이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님과 TF팀장님께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순으로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44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제44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 현장소통 정책제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어요. 소위원회 활동 정리를 위한 백서제작 그리고 현장소통을 위한 정책제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책제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연예술 연습공간에 대한 제안이 그동안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간간히 올라왔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다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지역의 문화재단이나 관계기관에 저희 쪽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정보제공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예술부와 협조해서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6 비자획득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복지재단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인데요. 그래서 복지재단에 해당 안건을 흥태림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제안을 하거나 8기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새로운 현소위 구성 후에 답변을 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흥태림 소위원장님께 중간 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소위 홈페이지 정책제안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안해 주신 분들이 통상 SNS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본인의 별명이나 실명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익명 접수의 취지를 살려서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제안자의 별명이나 성명이 보이지 않고 별표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요 논의안건은 활동보고서 정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가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되겠지만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다른 소위와 다르게 계속해서 정책제안이 올라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만약 정책제안의 안건 수요가 많거나 다뤄져야 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전체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활동보고서가 정리되면 공식적으로는 소위원회 활동은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소위원장님께서 보완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예.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E-6 비자 관련된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중간 답변까지만 진행한 상태고요. 예술인복지재단 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님을 통해서 문체부 안에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있는데요. 문화다양성위원회 쪽에도 전달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당사자들과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간담회를 진행하셔서 사안 파악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중간 답변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위원회와 TF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소위원회나 TF 단위에서 활동보고서라고도 하고 백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제작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안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도 7기 예술위의 성과로 공유될 필요가 있어서 7기 위원회 차원에서 제작된 활동보고서나 백서를 우리기관의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가게 된다면 공지사항 게시물 1개에 활동보고서 첨부파일을 나열해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건별로 TF나 소위원회로 공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책혁신부 차원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정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제14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14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제14차 회의는 5월 30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개최에 대한 평가나 소외 그리고 성평등 소위원회 마무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일반참여자의 토론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차기 소위원회 활동에서 고민 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성평등 소위원회 활동 마무리와 관련해서는 이후 성평등 소위원회에 대한 제안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이진희 위원장님께서 초안을 공유하고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 의견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규정안에 대해서 지난 라운드테이블의 패널의 공식의견을 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진희 소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연이어서 1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결과보고와 제1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함께 모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는 사실 2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블랙 소위원회가 의결된 이후에 개최된 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14차 TF 회의를 기점으로 TF 회의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1건의 회의는 1차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차 TF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서면의결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 외에 나머지 내용은 제1차 소위원회와 회의내용과 유사

하기 때문에 1차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난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소위원회 구성 의결은 받았지만 소위원장에 대한 임명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장으로 정정숙 위원님이 TF팀장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지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다면 위원장님 임명 결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보고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보완 작업 중에 있고 7월 중순에 발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협치추진단 감사처분보고서와 관련해서 창작산실 소통결과 공지 등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정정숙 위원님이 잘 진행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안건에는 없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22일 수요일에 정책혁신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고요. 반영되어야 될 추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책혁신 소위원회도 활동보고서가 곧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이후 소위원회 모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팀장님 혹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블랙과 관련된 소위원회 위원장 건은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위촉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과보고서에서 내부소통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김효은 노조위원장님께서 “수렴해 달라”라고 했고 저희가 “일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보고서에서 내부 소통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넣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자율성에 근거해서 한다는 내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다만, 내부소통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사전준비를 한다거나 소통 일정을 계획한다거나 또는 소통과 관련된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내용들은 노조에 일괄하고 노조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성과들을 내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수시로 저희가 노조와 논의하면서 내용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위원회가 8기에서도 운영된다면 그때는 정말 노조와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TF 및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받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11차, 제12차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보고를 지원총괄 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7페이지입니다. 다원예술 TF 11차 회의는 5월 26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6월 2일에 개최했기 때문에 포럼 바로 직전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의에서는 포럼 발제문 내용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차 회의는 포럼 개최 후인 6월 10일에 개최했습니다. 포럼을 끝으로 작년 동료 평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모두 완결된 상태입니다. 12차 회의에서는 아까 홍태림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13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활동 보고서에 들어갈 TF 제안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아직 보고서 작성이 남아 있지만 오늘 13차 회의를 끝으로 다원예술 TF도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TF 팀장님께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예, 저희가 TF를 운영하는데 지원총괄부와 사무처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급하게 만들어진 TF인데 예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쓸 일이 많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 약간 누락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고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차후에라도 아르코 웹진에서 저희 TF에서 논의했던 것을 좌담회 형식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회의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웹진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내용도 오늘 회의록에 기재하고요. 웹진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니까 거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16차 청년예술 TF 회의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력양성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홍태림 위원 : 오늘 예술인력양성부장님이 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나요?

홍태림 위원 : 예. 제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16차가 청년예술 TF 마지막 회의인데요. 회의는 지난 6월 20일에 진행이 되었고요. 회의안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TF 백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팀원들과 성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저희 TF백서 준비현황을 공유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TF에서 16차 회의 전에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미래예술제인과 관련해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원 1인, 서울시 청년예술청 담당자 1인, 우리기관의 예술인력양성부에서 청년예술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리님 1인으로 진행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 TF백서에도 모두 담길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자료에는 담겨있지 않은 내용을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 TF에서 여성과 청년의 충분한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도 국회와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전체 회의 때 제가 간단히 상황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규정개정위원회가 7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규정이어서 규정개정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마 7월 위원회 전체회의 때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안건으로 다루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참고삼아 미리 공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혹시 인력개발원장님께서 회의에 함께 하고 있는데 보완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고 순서는 조금 흔들렸는데 보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예술인력양성부장이 청년예술TF 간사로 되어 있어서 저는 청년예술TF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으면서 안건 등은 점검을 했습니다. 청년예술 TF도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아마 별도의 회의를 한번 더 열고 백서 발간으로 청년예술 TF는 끝나는 것이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예술 TF를 운영하시느라 홍태림 위원님을 포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중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제11차와 제12차 다원예술TF 회의 결과보고, 제16차 청년예술TF 회의 결과보고 등 소위원회와 TF와 관련한 위원님들 간 교차논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혹시 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다원예술과 관련해서 지난번 다원예술포럼을 할 때 제가 직접 참석을 못했는데요. 포럼이 종료된 후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유튜브에 잘 편집을 해주셔서 봤는데요. 처음에 지원총괄부장이 다원예술 TF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우리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약속했는데요. 6가지를 조목조목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총괄부가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도 많을 텐데 후속조치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과 함께 지원총괄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이미 박경주 TF 팀장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억되고요. 저도 역시 인사말을 했고 토론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양질의 라운드테이블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청년 라운드테이블과 관련한 논의테이블의 성과물은 별도로 거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고 7기 위원회를 평가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열거되겠지만, 우리가 다원예술과 관련하여 이루어낸 성과와 청년예술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성과를 낸 것들은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없으시면 소위원회와 TF 개최 결과 역시 접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올라온 9개 보고사항을 다시 한번 열거하자면, 국회지정사업인 뉴서울오페라단의 '시집가는날'과 관련된 보고 그리고 2023년도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보고, 체육기금 사업인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 그리고 6건의 소위원회와 TF 활동 결과보고 모두를 포함하여 9개의 보고안건을 일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하신 덕에 모든 회의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7월 회의와 관련하여 일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회의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객이 반갑게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공연장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주고 그동안 공연하지 못한 여러 작품들이 공연되면서 공연계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공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 남아 있고요. 특히 우리 문화예술계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계속해서 지원기구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허락이 있다면 제 33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회의종료)